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희망 나무

[희망나무] 2016년 3월 통권 제3호

발행일 2016년 3월

발행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

1406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평촌동 896)

T. 031-380-6078 / F. 031-380-4082

기획·편집 김은경, 박선형, 이경애, 문지혜, 엄정희, 김현지

디자인 그래픽오션 T.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희망나무 / 이 책에 실린 어떠한 내용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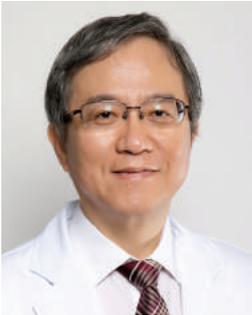
- | | |
|--|---|
| 04 감사의 말 | 16 후원자 소개 - 기부, 그 이상의 가치 |
| 06 한림후원회 소개 | 1. 기념일 후원이야기 - 내 생애 첫 나눔 |
| 07 2015 운영현황 | 2. 부부동행 후원이야기 - 우리 다했나요? |
| 08 사진으로 보는 한림후원회 소식 | 3. 교직원 후원이야기 - 친구추천하고 싶은 반전매력 원무팀을 소개합니다. |
| 10 아름다운가게 안양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 | 4. 특별한 후원이야기 - 사랑은 돌아오는거야! 변화된 삶을 나누다. |
| 13 LS전선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 24 착한나눔, 착한가게 |
| 15 후원환자 소개 - 어느 몽골환자의 이야기 | 25 후원해주신 분 |
| | 26 한림후원회의 새로운 후원자님을 초대합니다. |
| | 27 한림후원회 회원가입신청서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는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싱그러운 연두색의 작은 잎을 후원회의 심볼 마크로 상징화했습니다.

한림후원회는 희망의 작은 잎이 미래의
큰 희망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의 말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제11대 병원장 이열입니다.

먼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님들과 병원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한림대의료원의 플래그십(flagship) 병원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함께 환자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9년 개원 시부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원활동은 2010년 10월 한림후원회로 발족하면서 교직원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개인후원자들까지 힘을 더해 보다 많은 환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림후원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입원, 외래치료비는 물론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비용까지 환자를 위해 사용되며 바자회와 기업체 후원을 통해 마련된 특별기금은 생계비, 건강검진비 등을 통한 예방사업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한 끼 나눔을 중심으로 시작된 의료비 지원 사업은 현재 원내외 개인후원자, 기업체 후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후원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한림의 나눔 문화가 의료비 지원을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림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든든한 희망나무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공헌에서도 한림대의료원의 flagship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

이열





안녕하세요. 한림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경호입니다.

한림후원회는 2010년 10월 비영리 단체로 발족된 이래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과 여러 후원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림후원회는 매년 우리병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 분들은 한림후원회를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지원을 받아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림후원회를 통해 교직원분들과 외부 후원자분들은 직접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낌없는 후원을 주셨던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림후원회도 심벌마크 상징인 “희망나무”처럼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원자분들도 한림후원회와 함께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한림후원회장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유경호

INTRODUCTION

한림후원회 소개

한림후원회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및 지역사회 후원자님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설립취지

2010년 10월 설립되어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및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3



활동목적

-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휴머니티 실천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 제공

02



미션

환자의 치료유지 및
치료연속성을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보건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04



주요사업

- 의료비지원사업
- 기금모금사업
- 홍보사업

OPERATIONAL STA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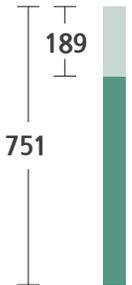
2015 운영현황

01

의료비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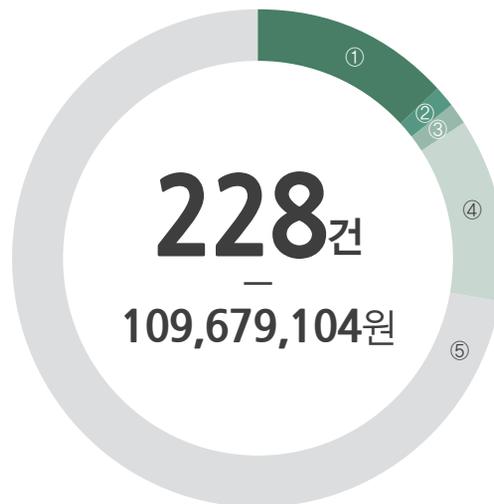
사회사업팀
지원환자 현황

25.1%

한림후원회
지원환자 현황751 건
1,871,484,534원189 건
96,177,670원

02

기금모금사업



1.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직원 한끼나눔 기부금
187명 / 14,485,230원
2. 외부 개인후원자 기부금
12명 / 1,528,240원
3. 저금통 기부금
21건 / 1,375,790원
4. 바자회 기부금
2건 / 13,133,000원
5. 특별 기부금(이자포함)
6건 / 79,156,844원

03

홍보사업



Thanks card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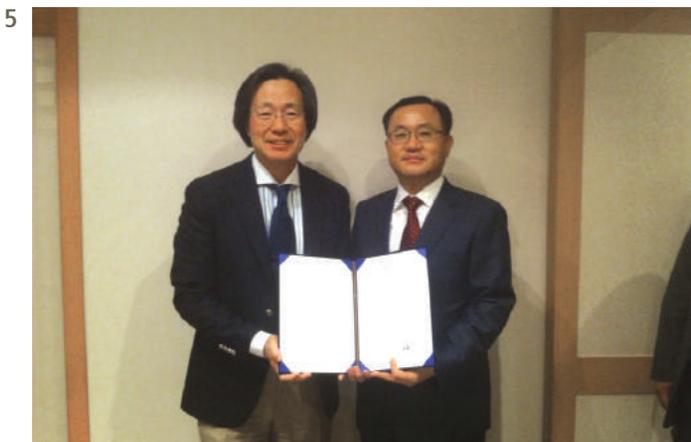
1,000부



뉴스레터

12부

사진으로 보는 한림후원회 소식



1

2015.4.30

제8회 작은 정성·큰 보람 한림 교직원 바자회

간호부 주관으로 한림후원회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교직원,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이 참여하였고 총 9,123,000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모아진 후원금은 가정의 달 기념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

2015.7.23

아름다운가게 안양점 이전오픈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직원들의 기증품으로 아름다운가게 안양점 이전오픈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물품의 기증뿐 아니라 느린소(교직원)봉사단, 무료검진팀까지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의 시간을 보냈으며 부가세를 제외한 수익금을 저소득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후원받았습니다.

5

2015.10.14

LS전선 협약식

LS전선과 함께하는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실시했습니다. 중앙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된 후원금은 지역사회내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에게 질환에 관계없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2015.8.17 - 22

사랑나눔 도서바자회

매년 오픈북과 함께 도서바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판매금액의 25%가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4

2015.9.19

국제나눔연대 후원금 전달식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 장기간의 치료와 치료 후에도 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를 위해 국제나눔연대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받았습니다.

* 국제나눔연대란? 2009년 설립된 국제나눔연대는 나눔의 소외계층발굴 및 후원, 콘텐츠 개발, 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6

2015.12.24

아름다운하루 생계비 지원 전달식

의료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아름다운가게 오픈식 이전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으로 생계비를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홍명희 이사장)에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감사장 전달



아름다운가게 안양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

지역사회와 같이 성장하는
나눔을 실천합니다.

2015년 7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직원은 아름다운가게 안양점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는 작은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름다운가게란?

시민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 재판매를 통해 자원을 순환시키며 판매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편지



고마운 선생님들께

저는 오늘 아름다운 기금 전달식에 왔습니다. 저도 가끔 이용한 아름다운가게에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저의 결혼기념일이기도 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요. 병원 조직검사 결과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던 차에 제가 수술을 받게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들도 몸이 좀 아파 취업도 못하고 치료중이지만 아들과 같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우뚝 서 이 사회에 공헌하는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24일 민연희 드림



고마운 아름다운가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나날들 속에서도 아름다운가게로부터 고맙고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아직 세상은 살아갈 만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가게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24일 박종대 드림



1. 2015.7.23. 아름다운가게 안양점 오픈
3. 자선경매



2. 인사말(이필운 안양시장)
4. 기증품 판매,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실시

Donation

2015.6~7

아름다운가게 안양점 이전오픈식을 위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교직원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품

1,239점 기증

이전오픈식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총 기증품

1,096건 판매

고객

539명이 방문

Support

14명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생계비 1,23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12.24 치료비 외에 도움이 필요한 간병비, 교통비, 난방비 등 사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및 보호자에게 생계비가 지원되어 따뜻한 연말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아름다운
희망나무기사를 통해
14명의 환자에게

의료비 1,3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안양시 무한돌봄센터를 통해 사례관리 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중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14명이 의뢰되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환자사연



대희와 건희 형제의 희망이 자라납니다

가족들은 대희(가명)가 첫돌이 되어갈 무렵 영유아 검사를 통해 발달지연으로 보이니 큰 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건희(가명)를 임신하고 있어 만삭의 상태였고 아빠는 오랜 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한 소득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어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한달 후, 동생 건희가 출생하면서 과호흡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서 가족들은 두 아이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대희와 건희의 소식을 알게 된 후원기관을 통해 대희의 재활치료비와 건희의 입원치료비를 지원받았고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외래치료비, 약제비, 유아용품 등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었고 식구가 늘어나면서 생활고는 심해졌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아름다운가게의 생계비 지원을 통해 대희와 건희에게 반가운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대희는 외래재활치료를 받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건희도 건강을 회복하여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공공근로 일자리가 생겼고, 21살의 어린 엄마에게는 힘겹지만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직 이겨내야 할 일이 많지만 이웃들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아름다운하루는 대희, 건희네 가정에 큰 희망나무가 되어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나는데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with **LS**전선

LS전선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안양에 위치한 대표적인 기업 LS전선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오랜 기간 LS전선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해왔으며, 2015년 7월 병원과 기업이 만나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의료복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병원과 기업이 만나
건강에 소외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LS전선은?

1962년 설립된 LS전선은 전선, 전력, 통신 등 에너지와 정보전송 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전력망과 통신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기업입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윤리경영을 통해 LS전선은 기업의 경영성과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기부, 헌혈릴레이, 자원봉사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LS전선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안양 및 인근 지역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원금은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었습니다.



LS전선 명노현대대표

지원환자 감사메세지

당뇨병으로 발목을 절단했지만 살아있어
소중한 삶을 사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67세 조00님

대장암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중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고마움을 표시할 수 없어
열심히 치료하여 완쾌된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72세 이00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옆을 보며 받은 고마움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61세 김00님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제대로
치루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하면서
남은 생 열심히 살겠습니다.
54세 김00님

- 사업명** LS전선과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기간** 2015년 7월 - 예산 소진시까지
- 후원금** 50,000,000원 (1인당 최대500만원 한도)
- 대상자** 안양 인근 지역주민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 후원절차** 의료사회복지사 평가 ▶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접수 및 심의 ▶ 지원 결정 및 집행

현재(2015.12 기준)까지 24명의 환자가 본 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질환 별로는 암 11명, 뇌질환 1명, 척추질환 3명, 호흡기질환 2명, 기타질환 7명으로 질환과 중증도에 관계없이 지원되면서 기존 의료비지원사업의 사각지대까지 치료기회가 확대된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활동이란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들이 역시 지역사회와 병원이 함께하는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받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환자들의 고마운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여러 분께도 공유하며 앞으로도 한림후원회는 보건과 복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후원환자 소개

어느 몽골환자의 이야기

Талархлаа!

고맙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나는 코리아드림을 꿈꾸던 몽골사람입니다.

2001년 여행비자로 생애 처음 한국에 방문한 몽골인 000씨. 몽골에 노모와 여동생이 있지만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불법체류자로 한국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뿐이었지만 건설현장, 이삿집 센터 등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07년 가족이 생겼다.

외롭고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식당일용직으로 일하던 부인을 만났습니다. 2007년 드디어 300만원짜리 월셋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애교 많고 아빠를 좋아하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아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간세포암 진단을 받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만 가족이 생기면서 소소한 행복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교회에서 실시한 무료건강검진을 통해 4.5cm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년전부터 코와 입에서 피가 쏟아지고 이겨낼 수 없는 피곤과 체력저하로 일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암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비지원이 결정되어 치료를 시작하다.

더욱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하루 하루 마음의 무게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교회 목사님을 통해 본원에 방문하였고, 상담을 통해 기적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 받아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힘겨운 병마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은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불법체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불가능하며 후원기관을 찾는 과정에도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후원자 소개

|
기부,
그 이상의
가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이비인후과
홍성광 교수님 자녀
홍지아양



1 기념일 후원이야기

내 생애 첫 나눔

아이 소개

제 둘째 아이는 이름은 지혜로울 “지” 이쁜 “아”를 써서 지아라고 합니다. 아이 태명이 채움이었는데 태명 그대로 엄마 뱃속에 40 주를 채우고 세상에 나왔고 세상의 모든 먹을것은 다 자기배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먹을 것도 엄청 잘 먹고 이쁜 짓도 엄청 많이 하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돌잔치 비용을 기부하게 된 사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정혜영 부부가 하루에 만원씩 1년을 모아서 자녀의 첫돌에 그 모은 돈을 기부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믿음의 친구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부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2009년 첫아이가 세상에 너무 빨리 미숙아로 나와서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과 기도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첫돌을 맞았고 큰아들 지우가 주변을 배려하는 착한사람으로 성장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처음 가졌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돌잔치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나 둘째를 가졌고 건강하게 40주를 채워서 세상에 나와 첫돌을 맞았고, 큰아들 지우 때와 같이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

주변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우”, “지아”는 엄마 아빠의 축복속에 행복하게 자라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 아이들이 알기 원합니다. 배려심과 나눔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의 기분까지 행복하게 한다 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정 후원자님의 자녀 한혜진양



아이 소개

한혜진. 2014년 3월 20일, 오후 5시 6분. 3.43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집 둘째딸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심한 입덧 없이 순하게 잘 자라주었고, 세상에 나와서도 큰 어려움 없이 귀엽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느덧 두 돌이 다 되어서 이제는 언니랑 제법 놀기도 하고, 자주 “빵”과 “크롱”을 외치며 스스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크는게 아깝다”고 하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입니다.



돌잔치 비용을 기부하게 된 사연

혜진이 100일 때, 시할머니께서 아기 선물 사주라고 돈을 좀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생애 첫 나눔”을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기에 특별히 필요한 아기용품도 없었고, 큰 아이 둘째 조금이나마 기부를 했던 것이 우리 가

족에게 좋은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쓸모가 다해서 없어지겠지만, 작게나마 나눔 줄 아는 마음을 선물해주면 오래도록 기억하고 또 아기가 커가면서라도 되새길 수 있는 변치 않는 좋은 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혜진이 이름은 지혜(慧)와 베풀(陳)입니다. 이름에 담긴 뜻처럼, 아이가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생애 첫 작은 나눔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

사랑하는 우리 혜진아. 둘째인데다 엄마가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함께 해주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혜진이를 사랑하고 아낀단다. 우리 가족에게 와주어서 너무 고맙고, 언제나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렴.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족으로 하루 하루 함께 살아가자 ^^

2 부부동행 후원이야기

우리 답았나요?

결혼이란 모습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같은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함께 웃고 울며 삶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제는 한림후원회를 통해 나눔의 모습까지 닮아갑니다. 어떻게 함께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한 부부들의 나눔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폐기능검사실 김연화 남편 서인섭 후원자님

“서로 불신하고 무차별 폭력이 없는 따뜻한 뉴스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니까요.”

궁합도 안 본다는 네 살 차이 잉꼬(?) 부부, A형 여자와 O형 남자가 만나 뜨겁진 않지만 은근한 온기로 살아가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을 통해 받은 감동으로 2005년도부터 꾸준히 월드비전에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사한 후에는 한림후원회 기부도 시작했구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이 아빠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교직원인 아니라도 우리 병원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내의 직장에 있는 후원회를 통해 부부가 함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의미 있지 않겠냐며 아이 아빠도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폐기능검사실 윤주희 남편 김규형 후원자님

“주위를 둘러보며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2014년 사랑하는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전부터 한림후원회를 통해 정기후원을 하던 저와 달리 아직 신앙은 기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이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면서 아픈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늘 바쁜 일상 속에 살다보니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움이라도 아이들만큼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하나라도 우리 부부는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여러 기부단체들도 많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후원한다면 더 아프고 더 절실한 곳에 잘 쓰여 질 것 같은 믿음에 한림후원회를 선택했고 그렇게 우리 부부가 함께 하는 기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팀 이순우 동탄원무팀 최용남 후원자님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족이 살아갈 세상이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주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혼 후 2010년 11월 소중한 첫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가 쌓는 덕이라 생각하며 어린이재단이라는 후원기관에 정기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멋진 가족들처럼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크면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겠죠? 2013년 우리 가족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첫 아이와 같이 정기 기부를 생각하고 있던 중 아내가 먼저 원내 한림후원회 후원자 모집 행사 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사회사업팀 선생님들이 동탄성심병원에 행사차 방문했을 때 한림후원회 소식을 들었고 비록 몸은 동탄으로 왔지만 밥 한 끼 값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때 몸 담았던 병원에 흔적을 남기는 것 또한 좋은 일이란 생각도 들면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 교직원 후원이야기

친구 추천

친추하고 싶은 반전매력 원무팀을 소개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후원자 분들을 위해 원무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무팀 임승린 계장입니다. 먼저 저희 원무팀을 소개해 드리면 함금호 팀장님을 주축으로 주간 원무팀 9명, 입원 수속계 2명, 야간 원무팀 2명 총 1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업무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산재환자 자격관리 및 환자 관리, 계약처 청구 및 입금 관리, 원무 기획, 심평원 민원, 보건소 민원, 소송 및 각종 분쟁 관리, 입원수속 업무, 야간 및 주말 응급실 원무팀 근무 등 24시간 쉼 없이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수납의 문제로 갈등 겪기도 하고 최 일선에서 일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환자들을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원무팀은 사회사업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인데요. 처음부터 환자를 위한 기부를 해야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줘야겠다는 거창한 생각보다 사회사업팀에서 한림후원회를 구성하고 후원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도와 드리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원무팀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자는 의견을 주었죠. 물론 저는 한림후원회의 간사기도 했고요. 좋은 일, 좋은 뜻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위기상황이 생기면 출동! 하는 팀이 있습니다.
묵묵히 한림을 지키는 히어로, 알고 보니 직원 중
7명이 한림후원회에 기부하고 있는
숨은 VIP 후원자였다는 놀라운 사실.
알고 보니 누구보다 따뜻한 남자들이라고 전해라~!
한림후원회에서 원무팀 직원들을 만나러 출동! 했습니다.

평소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한림후원회를 접하기 전에는 기부가 거창하고 한번 맘먹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 했는데요. 또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 생각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자투리 후원이라든지, 여러 한림후원회의 후원 방법들을 보고 또 기부를 하면서 내가 기부를 하고자 생각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부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기부는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것을 조금씩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무팀은 한림후원회의 시작부터 함께해서 지금은 다른 병원으로 전보 발령되신 분, 신규 입사한 분까지 한림후원회에 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원무팀 직원들을 보면 남자가 많아서 삭막하다고 하거나,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직원들만큼 정 많은 직원들도 없을 거예요. (사회사업팀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자가 있거나 도와드릴 환자가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들이 타병원에 전보 가신 분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직원들도 강제는 아니지만 후원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좋은 일이니깐 조금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기부 릴레이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기부를 망설이시는 분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부는 큰맘 먹고 하는 거라 생각 하시는 분들과 작은 나눔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회사업팀과 의료비지원업무를 함께 진행하면서 누구보다 한림후원회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비 후원자분들에게 한림 후원회의 매력을 알려주신다면?

한림후원회는 하루 중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정말 쉽게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게시판의 뉴스레터를 보며 내가 나눈 기부의 결실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도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힘으로 모아진 후원금이 앞으로 어떻게 쓰이길 바라시나요?

현재 한림후원회의 후원금은 생활환경이 어려우나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 지원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사각지대 환자 분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한림후원회가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착과 환자에 대한 배려, 환자와 직원과의 관계형성 등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사회의 사회공헌을 통해 병원의 이미지 개선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림후원회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림후원회는 희망나무입니다.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보듬을 수 있는 큰 희망나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4시간 바쁜 업무 속에
원무팀 후원자를 대표하여
시간 내주신 임승린 계장님,
감사합니다.

4 특별한 후원이야기

사랑은 돌아오는거야! 변화된 삶을 나누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유방암 멘토 김순중님

김순중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는 어떤 인연이신가요?

저는 수원에 사는 김순중입니다. 6년 전에 갑자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유방암을 발견하게 되어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하면서 병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네 살짜리 딸 아이를 혼자 기르면서 신학공부를 해왔습니다. 혼자 살다보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들은 일을 하고 이들은 공부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몇 년 지나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당시 안양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갔는데 내가 유방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니 지인이 김이수 교수님에게 가보라고 해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유방암 진단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어요. 10년 넘게 신학 공부하면서 전월세도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받게 되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컸지만 사회사업팀을 통해 수술, 항암치료 비용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치료를 모두 마치게 되었어요.



김순중님께서는 우리 병원의 유방암환자였다가 현재는 유방암환자를 위한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유방암 멘토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제가 완치가 되고 건강해지면서 주변을 돌아보니 나와 같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병원도 소개하고 교수님도 소개하면서 ‘유방암은 나올 수 있는 병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몇 년째 유방암 환자들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치료 받은 병원에서 유방암환자들을 위해서 ‘유방암은 나올 수 있는 병’으로 설명하고 싶었어요. 암이라고 생을 포기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지금 유방암 환자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전부터 멘토가 되고 싶었어요. 더 자주 병원에 와서 나와 같은 환자들을 돕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게 아쉬울 뿐이에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멘토링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유방암환자지만 정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우울감이 심한 환자를 병동에서 만났어요. 서로 문자 메시지도 주고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오고 가면서 병동에 들려서 만나고 가기도 했어요. 가끔은 아쉬움도 있어요. 어느 날 6병동에서 내 눈에 너무 예쁜 환자가 있더라구요. 젊고 예쁜 유방암 환자들을 보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슬프더라고요.

내가 유방암으로 치료받았던 힘든 경험을 했던 병원에 오는 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멘토링으로 병원에 오는 날은 늘 기쁜 마음으로 오려고 해요.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와요. 그러면서 집에 가는 길에는 좀 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김순중님처럼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선뜻 용기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각 병원에는 사회사업팀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해도 좋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고 말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게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양적인거, 많은게 중요하게 아니라 나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씨앗을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그 도움의 씨앗을 받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열매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와서 도움을 받았다가 지금은 다른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거 처럼요. 단순히 도움은 주고 받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순중님은 어떤 인생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청소년을 비롯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 연구도 하고 싶어요. 물론 이런 교육은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씩 시작하면 주변에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착한 나눔 착한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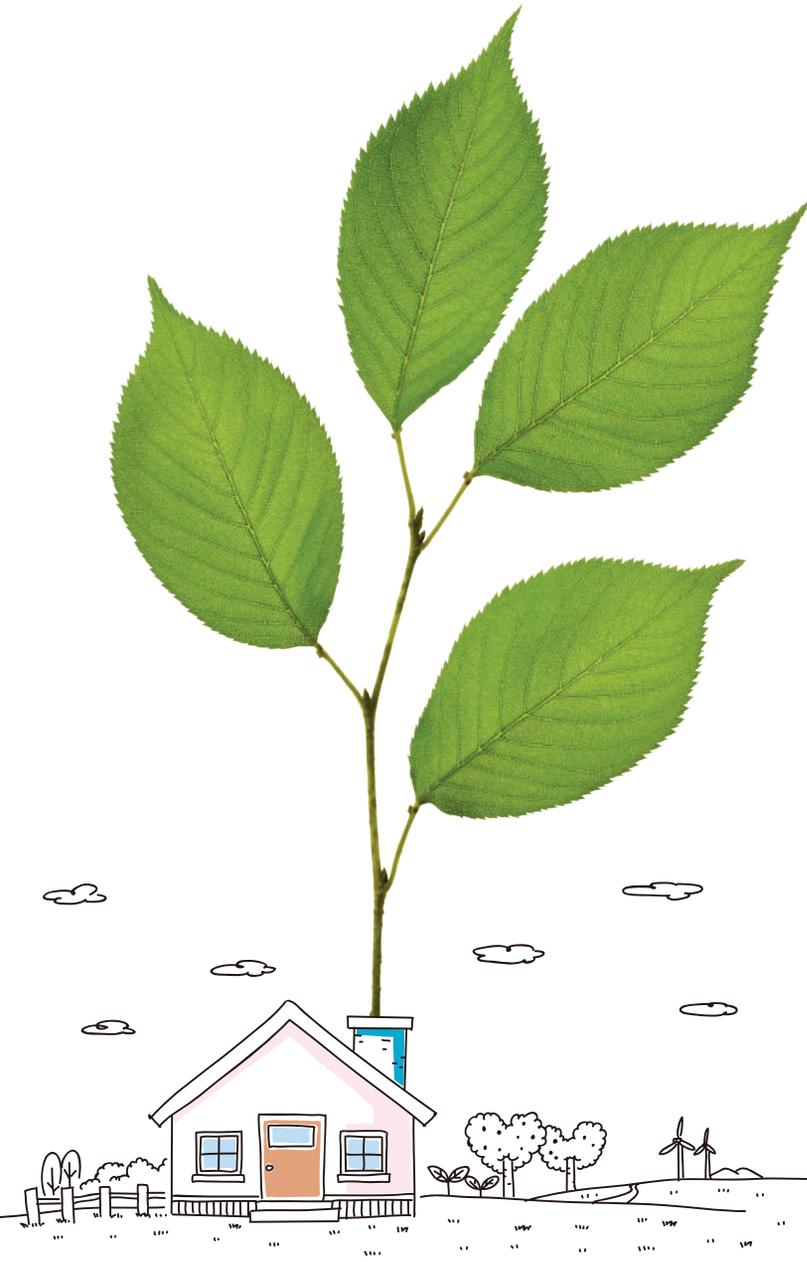
2013년 7월부터 한림후원회에서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인근 상가 및 병원내에 사랑의 저금통을 배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금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커피숍, 문구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모아진 동전은 작은 녹색 저금통에 크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담겨 소액의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현재 26개의 착한가게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한림후원회 사무국
031)380-6078

한림후원회 착한가게 리스트

오비탈문구	아딸
청담생고기	못난이아구나라
명가원 설농탕	플라밍고 (브레덴코)
가장 맛있는 족발	가르텐비어
Day Day	홍짜장
카페베네	여의도 떡집
홍콩반점0410	평촌성신약국
새마을식당	마사모또
CU	교동짬뽕
총무김밥	파리바게트
김밥천국	우리은행
봉평메밀막국수	#COFFEE
참죽	오얏봉약국



후원해주신 분

■ 한끼정기후원: 68명 / 2,548,000원

강현주 42,000	김민경 42,000	박범정 42,000	신송이 42,000	이 현 42,000	임유나 31,500	한승아 38,500
곽유림 7,000	김인수 42,000	박선형 42,000	심경신 7,000	이기쁨 42,000	임정미 42,000	한주희 42,000
김광중 42,000	김정훈 42,000	박용습 42,000	안광희 42,000	이봉화 42,000	장인복 42,000	홍현주 42,000
김병수 42,000	김종란 42,000	박이수 42,000	양재순 42,000	이승순 42,000	전덕인 42,000	황연주 42,000
김애경 14,000	김태하 42,000	박지원 42,000	염정희 42,000	이연옥 21,000	정명훈 42,000	김경미 42,000
김양희 42,000	김형섭 42,000	박총기 42,000	오세경 42,000	이준희 42,000	정승원 42,000	이윤경 21,000
김영선 42,000	김형철 42,000	박형철 28,000	유정하 42,000	이창국 42,000	정영아 38,500	임선옥 42,000
김영진 42,000	노근섭 42,000	백혜성 42,000	유정연 42,000	이창희 42,000	정율리 21,000	최용남 38,500
김요한 10,500	노혜미 42,000	서유라 42,000	유창희 7,000	이현정 35,000	주민경 42,000	
김은영 38,500	박경희 42,000	신동의 42,000	유혜미 7,000	이화정 42,000	최민호 42,000	

■ 급여자투리: 55명 / 1,748,970원

강동훈 1,270	김희진 5,550	양진희 7,040	이은희 6,900	채수인 6,810	김양희 33,240	오미선 56,270
김광주 5,220	문명화 6,170	엄태진 6,990	이진희 5,690	최익준 770	김재만 51,460	은석훈 51,240
김연화 41,140	박미란 5,040	유경호 5,780	이해연 5,430	황용일 7,860	김호영 52,810	이미연 68,570
김영미 6,430	박선희 5,600	유인규 6,430	이혜경 7,210	황혜정 6,780	김효정 32,810	이지연 50,050
김재경 5,250	백금선 6,620	윤종희 4,870	전원문 51,440	강영례 50,650	박선홍 66,030	정광익 70,650
김지선 46,650	송원희 1,220	윤주희 41,090	정은옥 2,540	강형경 54,420	박혜림 354,840	최수중 64,720
김한성 54,220	신선영 6,190	이경진 3,900	정진영 1,760	고성혜 62,150	송준호 55,080	한혜경 54,260
김해경 6,650	안명희 5,280	이상균 6,980	정화선 4,800	김덕희 50,790	신수정 69,360	

■ 정액후원: 67명 / 10,471,000원

김동원 120,000	김영희 1,200,000	박경희 120,000	양미화 60,000	이용희 60,000	조관혁 100,000	정환미 12,000
강희정 120,000	김은경 120,000	박명순 25,000	유성중 60,000	이유리 120,000	조진선 60,000	김경희 12,000
고성훈 2,000,000	김은주 240,000	박선미 12,000	유진숙 60,000	이재석 60,000	주영수 360,000	문아영 12,000
곽소영 110,000	김이수 120,000	박은선 100,000	윤종현 60,000	이제현 120,000	최경석 12,000	유경란 120,000
권영준 420,000	김현희 110,000	백유진 240,000	이경애 120,000	이효정 600,000	최용성 60,000	최은경 120,000
김기우 180,000	김형중 120,000	서선영 60,000	이관섭 126,000	임승린 60,000	태호열 120,000	김윤중 120,000
김민기 80,000	김혜자 60,000	서혜진 30,000	이남재 10,000	장승훈 126,000	한은애 120,000	김진영 30,000
김성애 240,000	김혜정 120,000	성중엽 120,000	이병철 240,000	장윤정 60,000	함단옥 12,000	
김소영 40,000	문지혜 120,000	송제민 60,000	이순우 60,000	정기석 120,000	홍미나 60,000	
김영미 60,000	민수기 60,000	송홍지 240,000	이영경 120,000	정수연 12,000	홍성광 240,000	

■ 일시후원: 1명, 3개단체 / 390,310원

민성근 25,760 중앙공급실 45,730 건국아송센터 18,820 성심회 300,000

■ 외부후원: 8명, 5개단체 / 93,145,034원

박선영 369,280 진희숙 31,960 이명주 120,000 김규형 180,000 서인섭 220,000 박용오 38,500 교회정 20,000 양영숙 240,000
 도서바자회(오픈북) 4,010,000 교직원바자회 9,123,000 아름다운가게 25,750,000 LS전선 50,000,000 국제나눔연대 3,000,000 이자 42,294

■ 착한가게저금통: 21개점포 / 1,375,790원

원내황금돼지 13,370 Day Day 69,040 총무김밥 29,540 김밥천국 18,570 참죽 92,480 안양젯집 52,340 리안헤어 19,040 #COFFEE 47,460
 카페베네 19,550 우리은행 7,940 새마을식당 18,980 명가원설농탕 25,190 플라밍고(브레덴코) 871,420 교동짬뽕 6,300 청담생고기 3,140
 가장맛있는족발 1,200 수납 32,460 마사모뜨 2,430 코메코메 4,630 오얏봉약국 19,920 뭇난이아구나라 20,790



한림후원회의 새로운 후원자님을 초대합니다.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한림후원회의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한림후원회 사무국에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희망은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한림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내역서는 연초(1~2월)에 회원가입신청서에 작성된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항목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림후원회 가입정보 요약

가입절차



한림후원회
가입신청서 작성



가입신청서 접수
(이메일, 팩스, 방문)



후원자 등록



후원시작

후원방법

교직원 급여공제

교직원의 경우 한림후원회 사무국에 급여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자께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입금

한림후원회 후원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기타후원

현찰증 등 현물후원은 한림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후원회 정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홈페이지와 커뮤니티를 확인하시면, 회원가입 및 후원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hallym.hallym.or.kr> ▶ 진료안내 ▶ 진료지원부서 ▶ 사회사업팀 ▶ 한림후원회

※ 커뮤니티: Refomax(GW/KMS) ▶ 커뮤니티 ▶ 검색 창에 "한림후원회" 검색 (교직원에 한함)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지하1층 사회사업팀내 한림후원회사무국

Tel: 031-380-6078 Fax: 031-380-4082 Email: hopetree@hallym.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1-745651 (예금주 : 한림후원회)

한림후원회 회원가입 신청서

■ 후원자정보

후원자명		핸드폰번호	
주소			
기부금영수증 신청	<input type="checkbox"/> 예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생년월일:)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명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됩니다. 한림후원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항목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후원관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후원방법

후원자명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일반후원자 <input type="checkbox"/> 사업자 (기업체,가게 등)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한끼나눔 (3,500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정보 우리1005-901-745651 (예금주 : 한림후원회)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 (교직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예금주명:) *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해당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이 필요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직접입금 (입금 예정일:)
후원자서비스 (뉴스레터, 소식지)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희망하지않음

※ 한림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회원가입 및 후원금 집행, 출금, 납부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정보(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 선택정보(주민등록번호,이메일,결제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회원가입일로부터 회원탈퇴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시에는 기부금영수증, 후원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사항과 같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후원신청자명 _____ (서명)



희망나무를 키워주세요

희망나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후원회

Tel. 031-380-6078 Fax. 031-380-4082 E-mail. hopetree@hallym.or.kr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지하1층 사회사업팀내 한림후원회사무국